

## 동북아시아 환경활동 교류회 의장 전체정리

### 전문

1. 2013년 10월 30일에 동북아시아 환경활동 교류회가 도야마시에서 개최되었다. 회의는 도야마현에서 주최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7 자치단체(야마가타현, 도야마현, 헤이룽장성, 강원도, 충청남도,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지방)가 참가했다. 또한 도야마현내의 환경NPO등 3단체(덴키우나즈키 프로젝트, 삼림종합센터, 도나미시 미술관)가 참가했다.

### 사례발표회

2. 참가한 자치단체들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학교, 환경NPO 등과 연계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해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한 「덴키우나즈키 프로젝트」로부터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활동에 대해 사례발표를 들었다.

### 현지설명회

3. 참가자는 NPO 법인 삼림종합지원센터 활동거점으로 이동해, 동센터로부터 삼림보전이나 환경교육등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도나미시 미술관으로부터(공익재단) NPEC 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는 표착물아트 제작 체험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의견교환회

4. 참가자는 사례발표회, 현지설명회, 의견교환회를 통해서 환경NPO등의 활동이 지역에 정착한 실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NPO등이 연계하고 협력해서 활발히 활동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 일환으로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NPO등의 연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교류활동 등에 대해서 앞으로도 검토해 나갈 것에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